

자료제공 : 2024. 6. 5.(수)

이 보도자료는 2024년 6월 5일 오전 11: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 부서: 도시교통실 교통정책과

교통정책과장

이진구

02-2133-2210

철도계획1팀장

김재권

02-2133-2242

사진 없음 사진 있음 쪽수: 5쪽

담당자

구지선

02-2133-2250

박예은

02-2133-2239

오세훈표 강북전성시대 견인... 면목선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 5일(수) 기획재정부 제4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 '면목선 경전철' 예타 최종 통과 의결
- 지역균형 교통발전과 시민 불편 해소 위한 정책적 필요성이 예타 통과 주요 이유로 분석
- 오 시장, 사업추진 강력한 의지 표명... 사업성 향상위한 다양한 방안·철저한 준비도 한몫
- 1·6·7·경의중앙·경춘·GTX B/C까지 7개노선 연계, 동북권 교통요지 탄생

- 서울시는 면목선 경전철 사업이 기획재정부 제4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예비타당성조사 심의 결과 최종 통과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5일(수) 밝혔다.
- '면목선 경전철'은 동대문구 청량리역(1호선)에서 중랑구 신내역(6호선)을 연결하는 총연장 9.147km에 이르는 노선으로 12개 역사로 구성된다. 총 사업비는 1조 814억 원이다.
- 지난 '21년 8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돼 같은 해 10월부터 기획재정부 및 한국개발연구원(KDI PIMAC)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해 왔다.

- 서울시는 지역균형 교통발전과 시민들의 열악한 대중교통 불편 해소를 중심에 둔 정책적 필요성이 이번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이유라고 분석했다.
- 이를 위해 시는 한 차례의 사업계획 변경을 포함해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했고 관계기관(기획재정부 등)과의 밀접한 협의 등 부단한 노력을 기울였다,
 - 면목선 주변 지역 장래 개발 계획 현행화 및 차량 형식 변경(고무차량→철제차량)을 통한 이용수요와 편익 향상 방안을 비롯해 열차 운행계획 및 정거장 공사비 최적화 등 총사업비 절감 전략 등을 마련해 기획재정부, 한국개발연구원(KDI) 제시했다.

<오 시장, 사업추진 강력한 의지 표명… 사업성 향상 위한 다양한 방안 철저한 준비도 한몫>

- 또한 오세훈 시장을 비롯한 지역 국회의원과 주민들이 사업 추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이며, 교통 불편과 지역균형발전 효과 등을 강조한 발표 등 예비타당성조사 종합평가를 체계적으로 준비해왔다고 덧붙였다. 평가 당일에는 강철원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서울시의 강력한 사업 추진 의지도 표명했다.
- 시는 이번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통과로 그동안 교통인프라 부족으로 도심 접근에 불편을 겪었던 지역 주민들의 편익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GTX·서울 지하철 등과의 연계성도 좋아져 국가적 과제인 균형발전 목표를 달성하는 거점 노선으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것으로 보고 있다.

- 시는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이후 기본계획, 기본 및 실시설계 등 후속 절차를 조속히 추진하여 조기 개통 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할 계획이다.
- 한편, 같은 날 진행된 ‘강북횡단선’은 편익을 높이고, 비용을 낮추는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시는 강북횡단선 또한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주요 노선으로 노선 조정과 사업성 제고 등을 통해 빠른시일 내 재추진 예정이라고 밝혔다.
 - 강북횡단선은 산악 구간을 통과하는 노선 특성상 상대적으로 비용은 많이 투입되나, 수요는 적게 예측돼 경제적 타당성이 낮게 평가된 것으로 분석된다.
- 오세훈 서울시장은 “면목선은 1·6·7·경의중앙·경춘·GTX B/C까지 7개 노선 연계해 사업 완료 시 동북권 교통요지 역할을 할 것”이라며 “서울 동북부와 도심에 잇는 면목선은 민생을 위한 주요 노선이자 강북권 대개조- 강북전성시대의 핵심 시설인 만큼 도시철도 지축 완성과 지역 발전 활성화를 견인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면목선(안)



※ (정거장 계획)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단계에서는 수송수요를 산정하기 위한 필요성에 따라 계획하였으며, 추후 노선별 기본계획, 기본·실시설계 단계에서 필요한 경우 주변 현황 변화,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위치로 조정 가능.

□ 강북횡단선(안)



※ (정거장 계획)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단계에서는 수송수요를 산정하기 위한 필요성에 따라 계획하였으며, 추후 노선별 기본계획, 기본·실시설계 단계에서 필요한 경우 주변 현황 변화,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위치로 조정 가능.